

# 올 11월부터 ISBN 본격시행

## 출판물 효율적 관리에 획기적 전기 마련...국립중앙도서관서 관장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1월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이미 ISBN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책들로, 뒷 표지 우측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도서번호가 인쇄돼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출판물의 효율적 관리를 꾀할 수 있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판매시점관리제도(POS)가 오는 1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된다.

국립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헌정보운영심의회'는 최근 ISBN 및 POS의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8월에 관련단체 및 실무차교육을 실시, 9월 중 출판사와 잡지사의 접수를 받아 10월부터 ISBN과 국제표준연속간행물(ISSN)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모든 책에 국적과 출판사, 책의 분류 등을 숫자로 표시한 고유번호가 매겨지고, 책

의 표지 뒷면 아래에 바코드 형식의 표시를 새긴 새로운 모습의 책이 서점에 선보이게 된다.

현재 9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맨처음 유럽에서 창안(1967)된 후 '81년에 일본이, '87년에 중국이 각각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필요성이 긴급한 과제로 남았었다.

ISBN에 의한 고유번호는 10자리 숫자에 국가번호-출판사번호-책번호-체크기호 등의 4종류로 표시하는데, 가령 ISBN 89-14-3662-24-8의 고유번호를 가진 책이라면 89는 국가번호, 14는 출판사(발행처)번호, 366224는 도서(서지식별)번호, 8은 체크기호로서 ISBN의 정

확성 여부를 자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호를 의미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89'의 국가번호가 배정됐다.

발행처번호를 배정받으려면 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헌정보센터에 가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에 의해 출판량에 따라 자리수가 다르게 배정된다.

한편 POS(Point of Sales)는 매장에서 팔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서울 대형서점 가운데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곳도 있다. 바코드 판독기 설치 등 전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서점측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POS도입에 의한 ISBN 활용은

몇몇 대형서점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판유통의 불합리성과 일반인들의 인식부족 등 정착단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출판물관리나 판매 정보, 베스트셀러집계, 독자관리 등에서 효율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어 우리나라 출판·도서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서관문화회원제' 신설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9월1일부터 '도서관문화회원제'를 신설 운영한다.

이 제도는 학술 및 정책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과 자료활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것인데, 도서관 문화회원제는 가입회원에겐 보존용 자료를 제외한 자료의 대출·복사우편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1백평 규모의 회원 전용자료실을 운용하게 될 이 제도의 회원자격은 대학교수·3급 이상 공무원·언론사의 문화 생활부 기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험단계로 당분간 실시되기 때문이다. 실시이후 반응을 검토해 확대할 이 회원제의 가입신청은 수시로 접수한다. 문의전화: 535~4651

## 무분별한 性愛소설 번역 여전히 성행

### 간행물윤리위원회 올 상반기 심의결과 발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에 발행된 도서 및 정기간행물·만화에 대해 실시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외설·폭력 등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도서 77종과 잡지 2백5건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제재결정을 내리는 한편 88권의 만화에 대해서는 전면개작, 44권의 만화는 반려, 9권의 만화는 폐기처분을 내렸다.

위원회측의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서의 경우 총5백82종 7백6권을 대상으로 심의했는데, 일부 군소출판사에서 음란소설을 발행·유통시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하출판물이나 상습적인 음란물발행사의 저질도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성애소설의 무분별한 발행·유통현상은 여전히 성행해 남녀의 정사장면이나 성폭행 등 선정적인 내용묘사와 잔혹한 폭력·살인장면이 묘사된 출판물이 청소년 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 청소년권장도서 60종 발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는 올 여름방학기간 동안 청소년이 읽을 만한 좋은 책 60종을 선정 발표했다.

국민독서문화의 확산과 출판문화의 향상을 위해 위원회측이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은 연간 120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책은 지난해 중반부터 금년 6월까지 국내에

의용 컬러화집

# 돈이 보낸 편지

이의용 컬러화집 제1집  
돈이 보낸 편지

신국판 / 153쪽 / 값2,800원

이의용 컬러화집 제2집  
돈이 보낸 편지

신국판 / 153쪽 / 값3,3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165편이 여기에 있다”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의 메시지들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다.  
진실은  
단 한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도서 출판 **대림기획** TEL : 268-4902  
FAX : 277-6946

서 발행된 도서 가운데 국내 저작물 31종과 번역도서 29종으로 결정됐다. 김대환(이화여대)교수를 위원장으로 6명의 선정위원이 참여했다.

### 만화에 연령별 구분 표시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최근 폭력성이나 선정적 내용이 무분별하게 실린 만화가 유통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8월부터는 아동만화와 청소년만화를 구분하는 표시를 각 도서에 삽입토록 방침을 세웠다. 아동용 만화는 연록색, 청소년 만화는 청색으로 표시하게 된다.

### 중국서 해외문학 심포지움

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해외문학심포지움이 중국 연길과 북경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북경의 국제무역센터 등지에서 '세계민족문학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문학상 시상식과 민족시낭송회도 아울러 진행됐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해외문학심포지움의 수상자 김용익씨에 이어 올해에는 중국 소수민족작가학회 상무회장인 시인 김철(60)씨가 선정됐으며, 이번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1백40명 중국측에서 50명 미국과 소련에서 20여명씩 모두 2백50명의 문인이 참가했다.

### 서울서는 국제출판학술회의

제5회 국제출판학술회의가 오는 10월18일과 19일 이틀 동안에 걸쳐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다.

한국출판학회(회장 윤형두)가 주최하는 이 회의에는 출판학회가 결

성된 한국·중국·일본·홍콩 등 4개국 출판인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윤형두·안춘근·부길만씨 등 한국출판학회 관계자 12명은 중국도서진출구총공사의 초청으로 보름간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 방문에서 양국의 출판인들은 두나라간 출판교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두회장에 따르면 "중

국 출판계 인사들을 만나 오는 10월 출판학술회의 참가를 약속받는 한편, 북한과 도서목록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도서무역도 증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국출판학회는 이미 지난 2월 북한측에 해방이후 남북한에서 출판된 책의 목록을 중국을 통해 교환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

의 불합리한 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숙의해왔다. 가까운 시일내에 이와 같은 입장을 관계당국에 진정·건의하는 한편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실행사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91 서울도서전 일정확정

'91 서울도서전이 '생활속의 독서 -한권의 감동, 한권의 흥분'이란 주제로 문화부와 교육부 한국출판고의 후원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될 것으로 밝혀졌다.

출회에 따르면,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번 도서전은 도서·잡지는 물론 현대적 매체의 총아로 부각된 전자출판물과 DTP시스템 등을 선보이게 된다는데, 1개사가 8개의 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위치에 따라 차등을 둘 예정이다.

한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방송과의 공동주최도 고려중이며, 협회내에 3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진행을 준비중이다.

### 「출판연구」 제3호 발행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는 반년간지로 펴내고 있는 「출판연구」 제3호를 지난달 말 발간했다.

출판관계 연구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 방편으로 창간된 이 연구서는 지난해 3월 첫호가 발행된 전문지로, 이번 제3호에는 '출판문화정책의 방향' '출판학과 관련학문과의 관계'란 주제로 특집이 구성됐다.

### 「일산출판단지 기본구상」도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90년 3월 배포한 제1자료집에 이어 제2집과 함께 산업단지 건설의 기본구상을 담

은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기본구상」이란 책자를 동시에 발간했다.

### 문화부, 저작권 소책자 배포

문화부는 문화예술인과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 전반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소책자 「저작권-권리의 보호와 그 이용방법」을 펴냈다.

관련기관단체에 10부씩 배포된 총16쪽의 이 책자에는 저작권의 등록절차, 저작권 규제와 조정 등 일반적인 사항이 간략하게 소개돼 있다. 한편 문화부는 이 책자와 함께 저작권 전반사항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저작권전화'도 개설 운영중이다. 문의전화: 392-5578

### 문학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문학아카데미(의장 김영정)는 91년 하반기 워크샵을 개설, 문학창작실기연구회원을 8월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난 88년 증견문인들이 설립한 문학아카데미는 장르별·그룹별 연구회원을 각 10명으로 제한, 1년과정으로 작품실기 지도와 창작연구를 병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창작실기과정은 시·소설·동화 등 3개 장르로, 시에는 박재천, 소설에는 윤후명, 동화에는 정채봉씨 등이 지도강사를 맡는다.

문의전화: 764-1074

## “재벌그룹 대형서점 개설 반대한다”

### 書聯측 입장 밝혀...잡지마진율 10% 인상 요구도



지난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서적조합연합회 창립 42돌 기념식.

전국서적조합연합회(회장 김석용)는 지난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42돌 기념식과 자축연을 열었다.

서련은 이날 기념식에서 '서점의 대형화에 대한 우리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중소서점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벌의 홍보용 문어발식 초대형서점 개설을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또한 현행 '도소매진흥법' 제2장 6조에 서점 개설이

"인근지역 도소매업의 균형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장면적의 변경등을 요구하거나 시장의 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련측은 최근 전국시도지부 및 각 단위 조합총회의를 잇달아 열고 △잡지의 마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릴 것과 △교과서 공급제도 개선 △영풍을 비롯한 대형서점

**남산 프로세스**  
NAMSAN DESIGN PROCESS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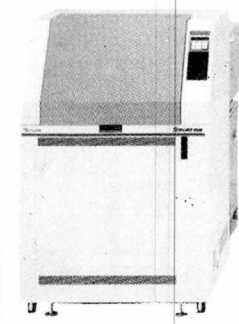
## 좋은 편집의 출발은 제판!

정성과 노력만으로 완벽한 제판을 기대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기존기기의 한계를 극복한 최신행 기기와 신속한 일처리 능력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남산 프로세스와 좋은 편집의 출발을 시도하십시오.

### \* Scanart 450 II

- 세계 최초의 A2 Size의 고밀도 분해
- 60점분의 원고를 한 번에 메모리 가능
- 선화작업시 핀홀제거, 식자의 굵기 선명도 조절 가능
- 농도계의 자동화 실현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49-11 태광 B/D 301호  
TEL: 269-8742~3 FAX: 278-8729



FUJIX MONOTONE SCANNER  
**SCANART 450 II**

